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학교 비상사태 대비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친화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매해 각 MCPS 학교는 학생들의 비상 시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회의 비상사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옵션에 따른 락다운(Lockdown with Options)

목표: 이 안전 절차는 학교에서의 무기를 갖은 개인의 공격에 대비하여 법시행기관이 개발하였습니다. Maryland는 이 훈련을 Safe to Learn Act of 2018에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방법: 학생과 교직원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을 유지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 교실이나 잠근 문 뒤에 숨고, 창문을 가리고 불을 끄고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용히 숨어 기다립니다.

» 학교 밖 경계선 넘어까지 교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 나이가 적절한 경우,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에는 공격자의 공격을 방해하거나 다치게 하기 위해 물건 등을 던지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기존의 락다운 진행 절차를 보완 강화한 것입니다.



대피경보/ 이바큐에이션 (Evacuation)

목표: 건물에 남아있기에 너무 위험한 상황(예: 화재, 가스냄새 등)일 경우, 학교 밖으로의 대피 시에 진행하는 안전 절차입니다.

방법: 학생과 교직원은 건물 밖의 지정된 장소로 가기 위해 학교를 떠납니다. 학교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때, 경찰이 인도해 줍니다.



있는 장소에서의 대피/ (Shelter in Place)

목표: 학교 주위 커뮤니티에 심각한 법집행 관련 사건이나 학교 건물 내에 의료문제 또는 사건이 있어 비상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안전절차입니다. 지도는 있는 장소에서의 대피동안 계속 이루어집니다.

방법: 건물에서 있는 장소에서의 대피의 경우, 학생은 교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 비상상황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남아있어야 합니다. 사건이 주위 커뮤니티에서 있을 경우, 건물 외의 활동은 내부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외부로의 문은 잠그어 둡니다.



차주 받는 질문 옵션에 따른 락다운/ LOCKDOWN WITH OPTIONS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작년에 학교에서 총기사건이 있을 때, Maryland는 공격자 대처를 위한 실상 훈련을 재검토하고 법집행기관과 교육구가 개발한 최근의 변경에 따른 훈련을 권면하는 Safe to Learn Act of 2018 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학교는 안전한 곳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학교의 안전을 방심하지 않고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전에 하던 락다운 훈련과 옵션에 따른 락다운 훈련은 어떻게 다릅니까?

*옵션에 따른 락다운(Lockdown with Options)*은 교육구의 이전 락다운 절차를 최적화하게 변경시킨 훈련방법입니다. 공간에 공격자가 있을 경우, 제일 안전한 절차에 따를 수 있도록, 이 옵션에 따른 락다운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방법/전략의 요점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은 적절한 경우, 또한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예 들어, 공격자가 교실에 들어 오려고 할 경우, 공격자의 공격을 방해하거나 공격하기 위해 물건 등을 던지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언제 훈련을 실시합니까?

모든 학교 교직원은 1학기 와 2학기 동안(일부 학교는 제2 성적 산출기간 또는 2학기 때) 학생 훈련과 함께 비상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각 학교는 학생 훈련이 있을 경우, 학교 커뮤니티에 이를 알리게 됩니다.

학생이 건물을 떠난 경우, 어디로 가야하며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직원의 지시와 함께, 학생은 학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 학교 경계선 너머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학교를 떠난 학생은 911에 연락하고 가족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안전한 곳까지 대피해야 하지만 상황이 안전해지면 학생의 안전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끝난 경우, 경찰, 교직원은 학교 외곽으로 가서 안전하며 돌아와도 된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학생은 휴대전화로 미디어를 통한 안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MCPS는 비상상황의 커뮤니케이션을 돕기 위해 다양한 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실제로 숨을 곳이나 학교 밖으로 도망갈 수 있는 실상 훈련 대신 이와 같은 훈련을 하는 것일까요?

*옵션에 따른 락다운(Lockdown with Options)*의 변화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직원과 학생이 새 절차를 준비할 수 있을지를 심려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과 학생은 *옵션에 따른 락다운(Lockdown with Options)* 훈련 중, 교실에 숨을 것인지 건물을 떠나 피신해야 할지의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상황인지(situational awareness)라고 합니다. 이는 주변 환경에의 인식/인지와 분석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직원과 학생의 훈련은 상황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